

##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

박형우·여인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 1.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의 의의

우리나라 근대의학 도입사에서 제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크다. 따라서 이 주제를 다루는 어떠한 연구도 제중원을 언급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중원에 관한 사료를 기록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제중원에서 실제로 진료 활동을 담당했던 선교 의사들이 남긴 자료와 조선정부측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제중원에 대한 사료의 출처가 양분되어 있는 것은 제중원이 외형적으로는 조선정부의 의료 기관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 선교부의 조선 진출을 위한 의료 활동 기관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의 재정·행정운영권과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의료권 행사라는 이중적 형태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이들 자료들은 각각 특징을 갖는데, 먼저 정부측 자료는 제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측면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중원은 알렌의 제안에 의해 조선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측 문서들은 하나의 기관으로서 제중원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 다시 말해 이 기관의 형식적·외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제중원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서 의료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아는 것이 제중원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로 진료 활동을 담당했던 선교의사들이 남긴 기록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물론 이러한 편의상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정부측 자료에도 제중원의 의료 활동을 짐작케 해주는 내용이 있고, 선교사측 자료에도 제중원의 설립과 운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제중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인 양측 자료들을 모두 참고해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 동안 제중원, 특히 초창기의 제중원과 관련하여 선교사측 자료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온 것은 알렌의 일기<sup>2)</sup>이다. 이 자료는 제중원의 설립을 제안했고, 설립 후에는 이곳에서 주

1) 주진오, 서양의학의 수용과 제중원-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3), 1997 : 1-29.

도적으로 진료활동을 했던 알렌 자신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당사자의 ‘일기’가 사료로서 가지는 강점이 있는 동시에 일기라는 사적인 형식의 기록이 가지는 사료로서의 한계 또한 엄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알렌의 일기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초창기 제증원의 운영과 의료 활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알렌이 헤론과 함께 작성하여 미북장로교 선교본부에 제출한 「제증원 일차년도 보고서」이다.<sup>3)</sup> 이 보고서에는 일기라는 사적인 기록에는 남기기 어려운 귀중한 공식적 기록과 자료들이 실려있다. 이 보고서가 특별히 가치 있게 평가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여기에는 제증원 개원 후 1년 동안 진료한 환자에 대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앓고 있던 질병들의 종류와 특징을 알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물론 알렌 이전에 일부 일본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개항장에 병원을 설치하고 자국민인 일본인을 진료하면서 덧붙여 일부 한국인을 진료하여 남긴 기록이 있다.<sup>4)</sup> 그러나 이 기록에 나타난 질병 분류는 비뇨기병, 생식기병, 화류병, 호흡기병, 염증, 전염병 등으로 질병의 큰 범주만을 나타내고 구체적으로 세분되어 있지 않으며,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에 비하면 알렌의 환자 통계는 정확한 서양 의학적 질병명에 의해 진단을 내린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질병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의 정확한 통계인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는 제증원의 상세한 도면이 실려 있어 의료기관으로서 제증원이 운영되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제증원 일차년도 보고서」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알려져 이와 관련된 연구에 거의 빠짐 없이 인용되었으나,<sup>5)</sup> 이 보고서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번역된 적은 없었다. 이 보고서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29년으로 당시 발간된 『세브란스 교우회보』 12호에 이 보고서의 초역이 실려있다.<sup>6)</sup> 번역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러들러 교수가 소장하던 것을 빌려주어 신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후에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최동(崔棟)<sup>7)</sup>이 이 보고서를 번역하여 「朝鮮王室病院 第一年度 報告書」란 제목으로 『조선의보』<sup>8)</sup>에

2) 김원모(완역). 알렌의 일기. 1991. 단국대출판부.

3) 알렌이 이 보고서를 조선 정부가 아닌 미북장로교 선교본부에 제출한 것은 제증원의 이중적인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라 할 수 있다.

4) 小池正直. 鷄林醫事(下篇). 1887 : 63-70. 이 책은 1887년에 출판되었으나 1883년 4월에서 1885년 3월 까지 진료한 환자 통계를 신고 있다.

5)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 이광린. 제증원 연구. 한국 개화사의 계문제. 일조각. 1986 ; 민경배. 알렌의 선교와 근대 한미외교.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 기창덕. 한국 근대의학 교육사. 아카데미아. 1995 ; 신동원. 公立醫院 濟衆院(1885-1894). 한국문화 16호. 1995 ; 주진오. 서양의학의 수용과 제증원. 세브란스. 역사비평 38호. 1997.

6) 조선왕실병원 제1년도 보고. 세브란스 교우회보 12호. 1929. 37-43.

7) 최동은 1921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졸업생으로 병리학, 법의학, 기생충학 등을 연구했고, 1,200여 쪽에 이르는 『朝鮮上古民族史』(인간사, 1966)라는 방대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최동에 대

실었다. 이 번역본은 보고서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원문에는 없는 소제목을 단 것이 특징이지만, 보고서의 완역이 아니고 일부, 특히 환자 통계 부분을 전부 빼 초역이었다. 또한 해방 후의 열악한 상황에서 인쇄되어 중요한 부분에 오식이 들어있기도 하다. 이 외에 『의학백년』<sup>9)</sup>에도 마찬가지로 진료환자 통계를 제외한 부분을 초역하여 실었다. 또 아직 공간되지 않은 이만열의 『한국 의료선교사』(가칭)의 부록으로 신기 위해 번역한 것이 있는데, 앞의 번역본들과는 달리 진료 환자 통계까지를 모두 번역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근대의학 도입사와 관련되어 발표된 논문들에도 예외 없이 이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고 있는데, 모든 연구자가 이 보고서의 원문을 본 것은 아니며 번역문만을 참고한 경우도 적지 않다. 제중원 연구에 관한 선구적인 업적을 낸 이광린은 이 보고서의 원문을 보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 보고서의 원문을 보았으나 ‘원본’을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가 이 보고서의 출전을 ‘Korea Research Center’에서 발간한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sup>10)</sup>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sup>11)</sup> 다음으로 이만열은 「한말 미국계 의료선교를 통한 서양의학의 수용」이라는 논문에서 이 보고서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sup>12)</sup> 그는 이 논문에서 보고서에 실린 진료 환자에 대한 통계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루어진 기창덕<sup>13)</sup>과 신동원<sup>14)</sup>의 연구는 이 보고서의 원문을 보지 못하고 모두 최동의 번역본을 참고로 하였다.

이 보고서의 원문과 번역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지만 최동의 번역문이 이 보고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병원에 대한 이야기(Narrative concerning the hospital)’를 주로 번역하였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외래 환자에 대한 알렌과 헤론의 주석 일부를 덧붙였다. 외래 및 입원환자 통계와 입원 환자에 대한 주석은 번역하지 않았다. 번역된 부분도 중요한 오식과 함께 임의로 생략한 부분과 적절하지 않게 번역한 부분이 있어 원문을 보지 않고 이 번역문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경우에는 잘못을 저지를 우려가 많다. 실제로 이 보고서의 원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제중원의 운영이나 성격에 관한 논의에서 잘못된 주장이 제기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박의우·여인석, 법의학자 최동, 대한법의학회지 18(1), 1994 : 3-6 ; 신동환, 한국 최초의 외과병리 및 임상병리학자 최동 박사, 연세의사학 2(1), 1998 : 227-230.

8) 조선의보 1(7·8), 조선의보사, 1947 : 104-108.

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 21-24.

10)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42, Korean Research Center, 1975 : 105-129.

11) 이광린, 제중원 연구, 한국 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 177.

12) 이만열, 한말 미국계 의료선교를 통한 서양의학의 수용, 국사관논총 3, 1989 : 206.

13)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아카데미아, 1995. : 31.

14) 신동원, 公立醫院 濟衆院(1885-1894), 한국문화 16, 1995 : 181-260.

## 2.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사실

## 1) 제중원의 개원날짜

최동의 번역본에는 광혜원의 개원일과 관련하여 “조선 최초의 현대 병원이 1885년 4월 15일에 별로 굉장히 차리지도 않고 개원하게 되었고 .....”<sup>15)</sup>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 근거하여 제중원의 개원일을 4월 15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제시된 바 있다.<sup>16)</sup> 그러나 이 ‘15’라는 숫자는 번역, 혹은 인쇄과정에서 발생한 오자로 원문에는 ‘10’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의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The hospital was opened April 10th, 1885, without any special ceremony.” 더구나 최동은 “without any special ceremony”라는 구절을 “별로 굉장히 차리지도 않고”라고 번역하고 있어 그 번역문만을 읽는 사람에게는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조촐하게나마 개원식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그러나 원문은 광혜원이 1885년 4월 10일에 아무런 특별한 의식 없이 개원했다는 사실만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또한 바로 뒤이은 문장에서는 “수일 후에는 외무대신의 성대한 개원 축하 피로연이 있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원문은 “A public dinner was given later on, in honor of the event by the Foreign Minister”로 개원 축하연이 개원 며칠 후에 열린 것이 아니라 단지 나중(later on)에 열렸음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공식적인 축하연은 이보다 약 4개월 후인 1885년 8월 29일에 열렸다. 이것은 같은 해 8월 8일자로 미국과 일본 공사관에 보낸 초청공문을 통해 확인된다.<sup>17)</sup>

## 2) 알렌이 첫 해에 진료한 환자의 수

또 한가지 최동의 번역본만 보았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알렌이 진료한 환자의 숫자에 관한 것이다. 그 번역본에는 “개원 후 시일이 갈수록 외래 환자 수가 증가하여 매일 백 여명의 진찰을 하게 되었다”<sup>18)</sup>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 숫자는 다소 과장된 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sup>19)</sup> 그러나 이 숫자가 단순히 알렌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과장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은, 최동의 번역문에는 빠져 있으나 위에 인용한 문장의 바로 뒤에 나오는 원문의 내용으로 확인된다. 빠진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마 때에는 눈에 띄게 환자의 수가 줄었고, 장마가 끝난 뒤에는 날씨가 좋아지자 사람들의 건강

15) 조선의보 1(7-8). 조선의보사. 1947 : 105.

16) 신동원. 公立醫院 濟衆院(1885-1894). 한국문화 16. 1994 : 205.

17) 舊韓國外交文書 美案. 문서번호 230 濟衆院 招宴의 件. 1885년 8월 8일(음력 高宗 22년 6월 28일)자 ;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885년 8월 8일(음력 高宗 22년 6월 28일)자.

18) 조선의보 1(7-8). 조선의보사. 1947 : 105.

19) 신동원. 公立醫院 濟衆院(1885-1894). 한국문화 16. 1995 : 221.

도 좋아져 봄철과 같이 많은 수의 환자는 오지 않았다. 올 봄에 환자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작년 전반기가 가장 바빴으며 이 시기에 작년에 본 환자의 반 이상을 보았다.” 즉 하루에 100명이라는 숫자는 알렌이 가장 많은 환자를 보았을 때를 말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환자의 숫자가 줄었다는 점을 알렌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환자를 본 것은 주로 제중원 개원 초창기의 봄철 동안이었음을 위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최동의 번역본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그의 번역본만 본 사람에게 알렌이 매일 하루에 백 명씩 환자를 본 것처럼 기술하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와 아울러 결정적으로 최동의 번역본에는 알렌이 진료한 환자의 상세한 통계표가 누락되어 있어 알렌이 후에 제중원 개원 일년 동안 진료한 환자가 만 여명에 이른다고 회고한 내용<sup>20)</sup>이 단순히 개인의 회상이나 대체적인 어림짐작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여 이 기록이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sup>21)</sup> 그러나 이 보고서의 진료 환자 통계에 따르면 알렌은 자신이 진료한 환자를 각 계통별로 분류하여 병명과 수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진료환자가 모두 10,460명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통계를 근거로 살펴보면 알렌이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의 병명까지 만들어내어 허위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보고서에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가 보고한 통계를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실제로 진료한 환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고 보이는데, 이는 알렌이 혼자서 일하던 개원 초창기에 환자가 너무 많아 진료기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병 환자 통계에 대한 주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 가족이 걸리는 옴과 같은 질병은 한 가족 전체를 한 예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피부병 환자만 수 천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3) 의학교 학생 선발

그 외에 의학교에 관한 사항에서도 최동 번역본의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최동의 번역본에는 “이들 16명의 학생은 처음 4개월간에는 소위 학습생 자격으로 교수한 후에 그 중에서 12명만을 본과생으로 선발하였다”<sup>22)</sup>고 되어 있다. 그런데 3월 29일에 개교한 학교에서 4개월이 지난 후는 7월이 될 터인데 1886년 4월 10일을 기한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벌써 본과생을 선발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원문에 따르면 이미 일어난 사실로 번역한 내용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장래의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이 원문에는 “These young men will be on trial for four months, at the end of which time twelve of the

20) 알렌(신복룡 역). 조선건문기. 평민사. 1986 : 152.

21) 신동원. 公立醫院 濟衆院(1885-1894). 한국문화 16. 1995 : 221.

22) 조선의보 1(7-8). 조선의보사. 1947 : 106.

best will be selected ……”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애초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4개월 후 12명을 선발하였는데 그들의 명단은 『朝野新聞』 1886년 7월 29일자<sup>23)</sup>에 나타난다.

#### 4) 제중원의 재정과 운영

이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는 제중원 운영 1년간의 재정 보고서가 실려 있는데 이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다. 이 재정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중원에서 재정의 집행이 이원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따르면 건물의 수리비용, 일꾼들의 급료, 장례비용, 음식비, 피복피, 연료비 등 일반 운영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 2,171.89달러로 이것은 김 주사<sup>24)</sup>의 소관이었고, 의약품, 의약기구, 학교 비품 구입 등 의료와 의학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모두 1,012달러로 이는 알렌의 소관이었다. 이 중 1,000달러는 외아문에서 직접 받고, 12달러는 김 주사에게 받아 사용하였다. 사실 그 동안 제중원의 운영에 관해 재정과 행정적 운영권은 모두 조선 정부에 있었고, 선교부 측은 단지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의 의료 활동에만 관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 보고서에 실린 재정 보고서는 일반적인 운영 경비 외에 의료 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제중원에 파견된 주사를 통해 집행된 것이 아니라 알렌이 외무아문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의료 활동과 관련된 경비가 알렌을 통해서 직접 지출된 사실은 조선 정부 자체가 제중원의 이원적 성격을 인정하고 제중원의 의료 활동을 일반 운영과는 분명하게 구별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적인 예산 집행은 제중원 주사의 전횡<sup>25)</sup> 혹은 선교의사의 무관심<sup>26)</sup>에 의해 나중까지 유지되지 못했고, 조선 정부의 재정난까지 겹쳐 결국 1894년 조선 정부가 예비슨에게 제중원의 운영을 이관하기에 이르렀다.<sup>27)</sup>

#### 5)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이 보고서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38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활자 인쇄물로 크기는 135×

23) 朝鮮通信. 朝野新聞 1886년 7월 29일자.

24)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제중원에 근무하고 있던 주사 중 김씨는 金奎熙와 金良默인데, 누가 소위 ‘대표 주사’의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25) “국왕이 해마다 3천원(당시 美貨로 1천 500달러)을 하사했으나 주사들을 통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돈의 대부분이 횡령되어버려 결국 원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돈은 극히 적었다.” [OLIVER R. AVISON. 예비슨 기념사업회 역. 구한말비록(하). 대구대학교 출판부. 1984 : 173].

26) 알렌에 이어 제중원을 맡은 헤론이 과로로 1890년 7월 26일 사망한 후, 제중원은 한동안 책임자없이 유지되었다. 이어 책임을 맡은 빈튼은 제중원의 각종 경비를 의사의 관할 하에 자유롭게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중원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 별도로 진찰소를 차려 조선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27) 美案. 奎章閣 18047. 1894년 9월 26일(음력 高宗 31년 8월 27일)자.

195mm이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되었다. 이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고서의 속표지 바로 다음에는 당시 제중원의 도면<sup>28)</sup>이 실려 있고, 그 뒤에 ‘병원에 관한 이야기(Narrative Concerning on the Hospital)’라는 제목으로 알렌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중원을 세우게 된 경위와 일 년간 제중원에서 환자를 본 경험, 그리고 의학교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다음에는 서울의 지리적 상황과 기후, 한국의 풍습 등에 대해 서술한 후 몇 가지 우리나라에 흔한 질병에 대해 설명하였다. 여기에 이어서 외래에서 진료한 환자에 대한 상세한 통계가 계통별로 나오고, 이 통계 중에서 특기할 사항이나 특별한 사례에 대해 언급하였다. 다음에는 입원환자 통계와 그 가운데 특별한 환자에 대한 언급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중원의 재정에 대한 보고서가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보고서의 원문에 대한 정확한 번역문을 역주와 함께 싣고 그 뒤에는 원문을 영인하여 실었다.

감사의 말씀 : 그 동안 제중원의 초기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원문을 구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보고서의 원본이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본열람실의 학교사 자료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보고서의 열람 및 복사본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귀중본열람실의 김영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보고서 원본의 존재를 확인한 얼마 후이지만 보고서의 복사본을 보내 주신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학과의 이만열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28) 이 도면은 『의학백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 20)에 실려 있는 것 보다 약간 후의 것이다.

## ▶ 번역문

## 병원에 관한 이야기

우연히 1884년의 반란<sup>29)</sup> 직전 서울에 도착한<sup>30)</sup> 나는 부상당한 민영익 공<sup>31)</sup>을 치료해주도록 요청받았으며, 그의 상처에 대한 기술은 다른 보고서(New York Medical Record)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는 또한 다수의 부상당한 청나라 병사도 치료해야 했다. 이러한 치료 사례들의 결과로 서양의술의 우월함이 나타나자 많은 한국인들도 치료받을 기회를 얻었으면 하고 있다. 그 결과 모든 환자를 적절하게 돌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되었고, 일종의 병원이 필요해졌다. 따라서 이런 기관의 설치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주한 미국공사 폴크 중위는 이를 승인해서 조선 정부로 공문을 보냈다.<sup>32)</sup> 문서는 호의적으로 접수되어 즉시 실행되었다. 좋은 부지<sup>33)</sup>가 선정되었고, 건물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개조되었으며, 의약품 및 기구를 위해 수 백 달러의 돈이 집행되었고, 이 기관에서 조선 정부를 대표할 관리들이 직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해 한 사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 명백했으며, 제안서에는 미국으로부터 선교의사를 청하는 것이 승인되어 있었다. 장로교 해외선교부는 요청을 받고 즉시 해론을 파송해 왔다.<sup>34)</sup>

병원 기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와 유사한 기관이 수 백년 동안 존재해 왔으므로 이런 오래된 기관을 타파하는 것이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을 불러 일으킬까봐 염려했다.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한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새 병원에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았으며, 국왕의 포고 및 병원을 개원해 전국 각 지방의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 여러 차례 반응을 보였다.

병원은 1885년 4월 10일,<sup>35)</sup> 아무런 특별한 의식 없이 개원했다. 나중에 통리교섭통상사

29) 반란이란 1884년 12월 4일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을 말한다.

30) 알렌은 1884년 9월 20일에 인천항에 들어왔고, 서울에 도착한 것은 9월 22일이었다. (김원모 (완역). 알렌의 일기. 1991. 단국대출판부 : 1884년 10월 5일자.)

31) 민영익은 명성황후의 조카였다.

32) 美案. 奎章閣 18046의 1. 1885년 1월 27일(음력 高宗 21년 12월 12일)자.

33)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로서 재동에 소재한 홍영식 집을 가리킨다.

34) 원래 조선에는 해론이 첫 선교사로 부임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당시 중국에 있던 알렌이 먼저 조선에 부임하였다. 해론은 1885년 6월 20일에 인천에 도착하였다.



무아문 독관 주관의 공식 만찬이 열렸다.<sup>36)</sup>

내원 환자 수는 증가했으며, 새 의사가 도착했을 때<sup>37)</sup> 하루에 100명까지 보았다. 장마 때에는 눈에 띄게 환자의 수가 줄었고, 장마가 끝난 뒤에는 날씨가 좋아지자 사람들의 건강도 좋아져 봄철과 같이 많은 수의 환자는 오지 않았다. 올 봄에 환자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작년 전반기가 가장 바빴으며 이 시기에 작년에 본 환자의 반 이상을 보았다.

병원을 개원한 지 수 주일 후에 스크랜튼<sup>38)</sup>이 도착했고, 헤론이 도착할 때까지 그의 도움을 받았다.

환자는 모든 계층 및 전국 방방곡곡에서 왔다. 거지 나병환자와 궁중의 높은 양반이 모두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왕진 요청도 많았다.

구경꾼들로 인해 우리의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모든 환자들에게 20푼 짜리 표를 사게 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표에 적인 번호대로 진찰받았으며,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처음에 병원에서 조제해 가는 모든 약에 100푼의 값을 매겼다. 이 방식을 몇 달 동안 계속했더니 약 20만푼(약 125달러)이 모였다. 그러나 이 적은 약값도 내기 힘든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어, 우리는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를 위해 귀닌을 가져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귀닌 10 알에 500푼을 받았다.

때로 상류 사회의 부인들도 치료했는데,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마당의 사람을 모두 내보내고 통행을 금지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이나 여성 모두와 자유로이 어울릴 수 있는 여러 명의 기녀(dancing girls)를 뽑았다.<sup>39)</sup> 기녀들은 총명하고 곧잘 배웠으나, 이들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내보냈다.

최근 나는 내 집의 개인 사무실에서 꽤 많은 귀부인(상궁 등)들을 치료했다. 여성을 위한 병원은 필요하며, 조만간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sup>40)</sup>

병원설립안에 표현된 대로 병원 내에 의학교(醫學校)(a school of medicine under the hospital management)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의 의도였다. 물론 이 일이 즉시 시작될

35) 알렌은 자신의 일기에서 4월 9일부터 환자를 보기 시작했다고 기록했으나, 가장 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고서에서는 4월 10일을 개원일로 삼았다. 제중원 개원일에 대해서는 이경록·박운재·여인석·박형우. 광혜원의 개원과 제중원으로의 개칭과정. 연세의사학 2(4). 1998 : 478-570'을 참고할 것.

36) 나중이란 1885년 8월 29일을 말한다. 舊韓國外交文書 美案 문서번호 230. 1885년 8월 8일(음력 高宗 22년 6월 28일)자와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885년 8월 8일(음력 高宗 22년 6월 28일)자를 참고할 것.

37) 새 의사란 헤론을 의미하며, 1885년 6월 말경을 말한다.

38) 감리교 선교사인 스크랜튼은 1885년 5월 1일에 내한했으며, 5월 22일부터 제중원에서 일을 하다가 헤론이 도착하자 6월 24일 사임하였다.

39) 알렌의 일기에 따르면 1885년 8월 5일에 다섯명의 기녀를 제중원에 받아들였다.

40) 제중원 부인과는 1886년 엘러스에 의해 개설되었다.

수는 없었지만, 개원 1년이 다 되어 갈 즈음 병원이 매우 성공적이었기에, 우리는 병원의 영향력과 기회를 증대시킬 방법과 비용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의학교(school department)를 개교하는 것이었다. 그 ‘비용’은 조선 정부에 요청하였다. 국민을 위한 우리들의 의료 활동에 항상 인자하신 국왕은 즉시 칙령을 내려 병원에 인접한 가옥(1)을 매입하고 이곳에 교사를 꾸미도록 하였다. 기구 및 제반 설비를 위한 경비와 새롭고 완전한 외과 기구 구입을 위한 경비가 즉시 하사되었다.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에게 의학교 일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의학 과정을 일부 이수했던 그는 이 일에 적합하다고 느꼈고 이 역할을 수락하였다.<sup>42)</sup>

의학교는 1886년 3월 29일에 경쟁 시험으로 선발된 16명의 학생으로 개교하였다. 이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빠르게 영어를 가르쳤다. 일부 학생의 영어가 꽤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므로 우리는 곧 이들이 과학 공부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督辦) 및 협판(協辦)과의 회의에서 채택된 학교 규칙에 의해, 이 학생들은 4개월간의 시험기간을 거친 후 성적이 우수한 12명을 선발하여 정규 과정에 편입시키고, 성적이 불량한 나머지 4명은 낙제시킬 예정이다. 매년 12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식사비, 기숙사비 및 학비 등을 제공할 것이며, 과정을 끝낸 후 ‘주사’의 직책을 가진 정부 관리로 등용될 것이다. 학생들은 이사(理事)의 역할을 할 협판과 교수의 허락 없이는 중퇴할 수 없다. 한국 해군의 첫 군함이 취역하게 되면 우리는 그 배에 군의관 1명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세관의 담당 의사로서 나는 ‘서울의 건강(Health of Seoul)’이란 장문의 글을 썼다. 그러나 이 작은 보고서를 읽는 많은 독자들이 그 글을 보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주제가 되는 병원이 위치한 도시에 관해 짧게 설명해도 괜찮을 듯하다.

서울은 제물포항에서 약 30마일 떨어져 있다. 그곳은 한국의 수도이며, 동시에 문화, 교역 및 정치의 중심지이다. 도시는 능선과 산마루, 그리고 정상을 따라 세워져 있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둘레가 10마일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도시의 상당 부분은 성벽 외곽에 위치해 있다. 믿을 만한 자료에 의하면 성벽 안에 약 15만의 사람이 있으며, 같은 수의 사람이 성 밖에 살고 있다고 한다.

41) 의학교 건물은 이 보고서 맨 앞에 실린 제중원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당시 교육을 담당했던 교수들이 정확히 어느 과목을 가르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朝野新聞(1886년 7월 29일자)에는 언더우드가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언더우드 부인의 자서전(L. H. 언더우드 지음. 이만열 옮김.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 선교사. 기독교문사. 1993. 2판 : 55)에서는 언더우드가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길모어는 자신의 지은 『Korea From Its Capital』(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 Work. Philadelphia. 1892 : 296-297)에서 언더우드가 한국어로 물리를 가르쳤다고 하였다. 한편 이광린의 「제중원 연구」(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에서는 언더우드가 처음에는 영어를 가르쳤으나 뒤에는 물리를 가르쳤다고 하였다.

도시의 위치는 훌륭하다. 큰 한강이 약 3마일 떨어져 있고, 도시가 위치한 분지가 강 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수가 일등급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사실 도시는 한때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었지만, 현재의 배수 체계에 대해 말한다면 이 도시를 세운 사람들의 의도와는 크게 다르다. 원래 거리는 폭이 20-200피트이며, 양쪽에 좋은 배수로가 있고, 잘 다듬어져 있는 길이었다. 이 배수로는 좁은 거리에서는 열려 있으나, 넓은 거리에서는 면적이 4평방 피트 가량의 뚜껑으로 덮여 있다. 대부분의 곳에서는 뚜껑이 내려앉아 막혔고, 열려 있는 배수구는 좁은 거리에 집들이 증축되면서 침범 당해, 장마철에 쏟아진 폭우가 급류를 형성할 때를 제외하고는 물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간 오물 속의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

가옥은 작지만 대체로 좋다. 그러나 오밀조밀 모여 있는 작은 방의 공기는 대개 매우 답답하고 악취가 난다. 그것은 흔하지는 않지만 장티푸스 환자에게서 나는 냄새와 비슷하다.

난방 방법은 양호하고 경제적이다. 방바닥 아래에는 돌과 진흙으로 된 연도가 깔려있고, 음식 조리에서 사용되는 작은 불로 따뜻해진 구들장은 다음에 불을 지필 때까지 열기를 유지하고 방을 쾌적한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방으로 들어오는 연기는 기름칠 카페트(oil cloth carpeting)와 유사한 매우 섬세한 종이를 사용해 막는다.

옷은 순백색이나 밝은 색의 삼베 혹은 거친 천연 면인데, 상류 계급은 비단을 사용한다. 옷 모양은 외국 부인의 어깨두르개와 비슷하네 소매가 무척 크다. 이런 옷은 예쁘고 건강에 나쁘지 않지만, 세련되어 있지는 않다.

음식은 짠, 우리가 먹는 양상추와 양배추를 교배시킨 것 같은 일종의 양배추로 만든 김치(sourkrout), 고기, 다량의 고추, 약간의 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음료는 나쁘다. 물은 말할 나위 없이 더럽고, 사람들은 거의 차를 마시지 않으며, 술은 독하고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과음하고 과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즐길 거리에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기후는 대체로 좋은데, 겨울에는 한결같이 건조하고 온도는 2달 이상 0도 근처에 머물러 있다. 얼음은 많으나 눈은 거의 없다. 가장 더운 달은 5월과 6월이고, 못견딜 더위가 있는 7월이 오기 전에 장마가 시작되어 대기를 식혀준다.

말라리아는 가장 흔한 질병이며, 4일열이 가장 흔하다. 매독은 말라리아 다음으로 많은데, 그 증상은 매우 많으며 다양하다. 당연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소화불량이 많다. 나병은 흔하다. 피부병은 모든 종류를 다 볼 수 있다. 수종은 흔히 볼 수 있다. 연주창은 매우 흔하다. 요약하면 흔히 알려져 있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다양하게 변형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각기병, 흑색증 등 흔하지 않은 병도 있다. 디스토마와 사상충증도

있다.

사람들에게 약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수술 후에는 중국인보다 더 잘 움직이지는 못한다. 아마도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고기를 더 먹고 강한 술을 마시기 때문인 것 같다.

한의사들은 치료에 대해 좋은 관념을 갖고 있다. 그들의 체계는 중국에서 따 온 것이며, 약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으나 분명한 효과는 거의 없다. 침과 뜸은 그들의 주요 치료수단이며, 일반적으로 그들이 시행하는 유일한 외과적 처치이다. 꽤 많은 한의사가 병원을 이용했는데, 모두 치료 결과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그 중 몇 명은 서양의술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목욕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빼고는 사람들은 대개 병원의 규칙을 따랐다. 병원을 필요한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은 어렵다. 병원 건물은 너무 작고 병상은 대개 외과 환자로 가득 찬다. 사실 우리는 병원 전체가 외과 환자로 찼기 때문에 순수한 내과 환자의 대부분에 대해 입원을 거절해야만 했다. 또한 우리는 다른 환자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입원 환자를 퇴원시켜야 했다. 내가 사용한 'beds'란 용어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따뜻하고 장판지로 덮인 구들 위에서 요를 깔고 잔다. 우리는 이곳 풍습에 따라 구들 밑의 'Kang'을 통해 병원의 난방을 한다.

병원에서는 엄격하게 절약했는데, 이것이 당국에 더욱 호감을 주었다. 그리 오래지 않아 적절하게 갖추어진 외국식 건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이치. 엔. 알렌

---

## 외래환자 분류

### I. 발열(Fevers)

전염성(Conagious):

비발진성(Non-eruptive),

발진티푸스(Typhus) ..... 1

단독(Erysipelas),	
안면부(Face) .....	9
전신(General) .....	1
발진성(Eruptive),	
천연두(Variola) .....	8
접종성(By Innoculation):	
우두(Vaccinia) .....	31
풍토성(Endemic):	
이장성(Remittent) .....	18
간헐성(Intermittent),	
매일열(Quotidian) .....	177
삼일열(Tertian) .....	171
사일열(Quartan) .....	713
오한(Brow ague) .....	2
각기병(Kake) .....	15
급성류마티즘(Acute rheumatism) .....	1
<hr/>	
계 .....	1,147

## II. 소화기계통의 질병(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식욕부진증(Anorexia) .....	2
회충(Ascaris Lumbricoides) .....	93
간경변증(Cirrhosis Liver) .....	4
복통 - 영아(Colic-infantile) .....	12
변비(Constipation) .....	31
충치(Dental Caries) .....	60
위확장증(Dilatation Stomach) .....	1
설사(Diarrhoea) .....	306
이질(Dysentery) .....	184
소화불량(dyspepsia and Indigestion) .....	582
항문열창(Fissure Anus) .....	21

항문누공(Fistula in ano) .....	94
위염(Gastritis) .....	11
치질(Haemorrhoids) .....	105
탈장(Hernia) .....	32
간염(Hepatitis) .....	4
간의 낭포(Hydatids of the Liver) .....	2
비장비대(Hypertrophy Spleen) .....	65
장카타르(Intestinal Catarrh) .....	49
황달(Jaundice) .....	46
장폐쇄(Obstructio Bowel) .....	1
인두염(Pharyngitis) .....	10
위작열감(Pyrosis) .....	70
장탈출(Prolapse Bowel) .....	26
유연증(Salivation-Native) .....	4
구내염(Stomatitis) .....	55
백선(Tinea Salium) .....	86
편도선염(Tonsillitis) .....	6
중이염(Tympanitis) .....	5
단순성 인후궤양(Ulcer Throat-Simple) .....	65
<hr/>	
계 .....	2,032

### III. 순환기계통의 질병(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동맥염(Arteritis) .....	1
수지동맥류(Aneurism finger) .....	1
슬와동맥류(Aneurism popliteal) .....	1
코피(Epistaxis) .....	12
각혈(Haemoptysis) .....	92
승모판부전증(Mitral Insufficiency) .....	7
<hr/>	
계 .....	114

IV. 호흡기계통의 질병(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실성증(Aphonia) .....	15
천식(Asthma) .....	148
기관지염(Bronchitis) .....	141
기관지류(Bronchocele) .....	1
기관지루(Bronchorrhoea) .....	38
코감기(Coryza) .....	3
호흡곤란증(Dyspnoea) .....	14
폐기종(Emphysema Lung) .....	4
슈나이더씨막염(Inf. Schneiderian Membrane) ...	2
후두염(Laryngitis) .....	3
수은중독과 폐의 염증[Mercurial poisoning and inf. Lung(native)] .....	1
취비증(Ozaena) .....	11
백일해(Pertussis) .....	30
폐렴(Pneumonia) .....	1
늑막염(Pleurisy) .....	14
폐결핵(Phthisis) .....	50
<hr/>	
계 .....	476

V. 신경계 질환(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팔위축(Atrophy Arm) .....	1
무도병(Chorea) .....	2
진전섬망(Delirium Tremens) .....	12
간질(Epilepsy) .....	307
반두증(Hemierania) .....	4
히스테리(Hysteria) .....	33
히스테리 구( " Globus) .....	3
백치(Idiocy) .....	3

정신병(Insanity)	
조증(Mania) .....	6
치매(Dementia) .....	3
우울증(Melancholy) .....	4
불면증(Insomnia) .....	3
요실금(Incontinence urine) .....	3
변실금( " feces) .....	1
요통(Lumbago) .....	62
뇌막염(Meningitis) .....	4
편두통(Migraine) .....	16
신경쇠약(Nervous Prostration) .....	1
신경통(Neuralgia) .....	28
야간 동통(Nocturnal pain) .....	66
야간 발한( " sweating) .....	4
치통(Odontalgia) .....	15
마비(Paralysis)	
전신성(General) .....	49
진전성(Agitans) .....	18
상지(Arm) .....	23
안면(Facial) .....	41
발(Foot) .....	1
하반신 마비(Paraplegia) .....	19
반신 마비(Hemiplegia) .....	59
반신 마비, 동통 동반( " Painful) .....	1
운동실조(Locomotorataxia) .....	14
좌골신경통(Sciatica) .....	22
안륜근경련(Spasm. orbicularisosis) .....	1
신생아아관긴급(Trismus Neonatorum) .....	1
사경(Torticollis) .....	1
서경(Writer's Cramp) .....	2
<hr/>	
계 .....	833



VI. 임파선계 질환(DISEASES OF THE LYMPHATIC SYSTEM)

경부임파선비대(Enlarged Cervical glands) ..... 212  
 안구돌출성 갑상선종(Exophthalmic Goitre) ..... 2

---

계 ..... 214

VII. 비뇨생식계 질환 및 매독(GENITO-URINARY DISEASES AND SYPHILIS)

알부민뇨(Albuminuria) ..... 4  
 귀두염(Balanitis) ..... 1  
 브라이트씨병(Bright's Disease) ..... 6  
 횡현(Bubo) ..... 44  
 하감(Chancre) ..... 146  
 연성하감(Chancroid) ..... 235  
 요유출(Extravasation Urine) ..... 15  
 임질(Gonorrhœa) ..... 156  
 만성임균성요도염(Gleet) ..... 51  
 음낭수종(Hydrocele) ..... 3  
 발기불능(Impotence) ..... 33  
 신염(Nephitis) ..... 1  
 야간정루(Noctirnal emissions) ..... 1  
 음낭과 포피 부종(Odema Scrotum and Prepuce) ..... 4  
 감돈포경(Paraphimosis) ..... 2  
 포경(Phimosis) ..... 9  
 회음동(Perineal sinus) ..... 3  
 뇨저류(Retention Urine) ..... 1  
 성과다(Sexual excess) ..... 23  
 배뇨곤란(Strangury) ..... 3  
 요도협착(Stricture urethra) ..... 14  
 매독공포증(Syphilophobia) ..... 7

매독(Syphilis) .....	760
항문 고무종(Syph. Gumma anus) .....	89
매독 골막염( " Periostitis) .....	96
여각진( " Rupia) .....	44
안면 매독 결절( " Tubercle face) .....	21
매독궤양 체부와 하지( " Ulcers body and legs) .....	60
매독과 나병(Syphilis and Leprosy) .....	52
매독성 인후궤양(Syphilitic ulcer throat) .....	18
<hr/>	
계 .....	1,902

VIII. 전신질환(GENERAL DISEASES)

빈혈(Anaemia) .....	33
철결핍성빈혈(Chlorosis) .....	4
수종(Dropsy) .....	51
수종, 복수( " Ascites) .....	8
통풍(Gout) .....	3
등유중독(Kerosine poisoning) .....	1
소모증(Marasmus) .....	1
흑색소침착증(Melanosis) .....	7
악성빈혈(Pericious anaemia) .....	1
구루병(Rachitis) .....	3
류마티즘(Rheumatism) .....	106
연주창(Scrofula) .....	146
뇨독증(Uraemia) .....	1
<hr/>	
계 .....	365

IX. 새로운 질병(NEW DISEASES)

음낭의 부분적 오한(Localized chills of Penis) ..... 6  
 다리의 부분적 오한(Localized chills of Leg) ... 1

계 ..... 7

X. 눈 질환(EYE DISEASES)

흑내장(Amaurosis) ..... 25  
 천연두 후의 흑내장 및 안구 위축(Amaurosis and atrophy globe after variola) ..... 1  
 변연안검염(Blepharitis Marginalis) ..... 72  
 안검경련(Blepharospasm) ..... 1  
 백내장(Cataract) ..... 53  
 결막염(Conjunctivitis) ..... 67  
 결막농양(Corneal abscess) ..... 1  
 결막부종(Chemosis) ..... 1  
 결막궤양(Corneal ulcer) ..... 59  
 결막혼탁( " opacity) ..... 104  
 누낭염(Dacryocystitis) ..... 4  
 망막박리(Detachment Retina) ..... 3  
 반상출혈(Ecchymosis) ..... 2  
 유루증(Epiphora) ..... 5  
 안검내반증(Entropion) ..... 110  
 녹내장(Glaucoma) ..... 1  
 육아안검(Granular lids) ..... 5  
 선천성색맹(Hemeralopia) ..... 2  
 홍채염(Iritis) ..... 12  
 각막염(Keratitis) ..... 46  
 야맹증(Nyctalopia) ..... 3  
 시신경통(Optic Neuralgia) ..... 1  
 임질성안염(Ophthalmia-Gonorrhœal) ..... 4  
 전안구염(Panophthalmitis) ..... 4  
 안검소양증(Pruritus Blepharalis) ..... 1

익상편(Pterygium) .....	10
광선혐기(Photophobia) .....	3
안검하수(Ptosia) .....	4
사시(Strabismus) .....	5
검구유착증(Symblepharon) .....	5
홍채유착증(Synechia) .....	3
포도종(Staphyloma) .....	12
<hr/>	
계 .....	629

XI. 귀의 질병(DISEASES OF THE EAR)

난청(Deafness) .....	100
이염(Otitis) .....	26
이루(Otorrhœa) .....	28
고막천공(Perforation tympanum) .....	27
이지(Cerumen) .....	105
이명(Tinnitus aurium) .....	31
이관궤양(Ulcer meatus) .....	1
<hr/>	
계 .....	318

XII. 종양(TUMORS)

굴뚝청소부 암(Chimney sweeps' cancer) .....	1
상피종 안면(Epithelioma face) .....	12
상피종 음경( " penis) .....	5
인삼 사용으로 인한 안면 상피성 종양 ( " - like growth on face after using Ginseng) ..	1
골육종(Osteo sarcoma) .....	1
구개종양(Polatal tumor) .....	1

비강폴립(Polypus nose) .....	33
하마종(Ranula) .....	1
미분류 종양(Tumors: Unclassified) .....	90
<hr/>	
계 .....	145

XIII. 골, 관절 및 건 질환(DISEASES OF BONES, JOINTS, AND TENDONS)

자발성지이지단증(Ainhum) .....	1
관절강직(Anchylolysis)	
주관절(Elbow) .....	5
고관절(Hip Joint) .....	1
슬관절(Knee) .....	2
수축된 굴근-손(Contracted Plexors-hand) .....	1
탈구(Dislocation)	
족관절(Ankle) .....	1
주관절(Elbow) .....	1
외측설상골(Ext. Cuneiform Bone) .....	1
슬관절(Knee) .....	1
견관절(Shoulder) .....	2
무지(Thumb) .....	2
슬관절 신진(Enlarged Knee) .....	2
상악골외골증(Exostosis Sup. Maxillary) .....	1
골절(Fracture)	
손목-콜레스씨 골절(Wrist-collis) .....	8
쇄골(Clavicle) .....	2
대퇴골(Femur) .....	2
슬개골(Patella) .....	1
유양돌기비대(Mastoid Enlargement) .....	1
고관절질환(Morbus Coxa) .....	1
괴사(Necrosis)	
쇄골(Clavicle) .....	3

주관절(Elbow Joint) .....	8
전두골(Frontal Bone) .....	7
하악골(Inf. Maxillary) .....	6
슬관절(Knee Joint) .....	2
대퇴(Femur) .....	4
중수골(Meta-Carpus) .....	8
중족골( " Tarsus) .....	2
요골(Radius) .....	1
견관절(Shoulder Joint) .....	1
요추(Lumbar Vertebra) .....	5
늑골(Ribs) .....	4
골염(Ostitis) .....	5
척추결핵(Potts' Disease) .....	2
류마치스성 관절염(Rheumatoid Arthretis) .....	2
측부족관절인대 파열(Rupture M't. Lat. Lig. Ankle) .....	1
활액막염(Synovitis) .....	7
침족(Talipes Equinus) .....	1
<hr/>	
계 .....	105

#### XIV. 외상(WOUNDS AND INJURIES)

척추만곡증(Curvature Spine) .....	13
화상(Burns)	
일반(Common) .....	24
화약(Gunpowder) .....	7
서혜부누공(Fistula groin) .....	1
전신 상처(General Wounds) .....	31
발톱조갑입증(Ingrowing Toe-Nail) .....	3
염좌(Sprains) .....	26
창상(Wounds)	
좌상(Contused) .....	4

물린 상처-사람(Bite-Human) .....	1
물린 상처-말( " -Horse) .....	1
물린 상처-뱀( " -Snake) .....	2
물린 상처-벌레( " -Insect) .....	1
전두부(Forehead) .....	1
총상(Gunshot) .....	18
손가락-절단(Finger-amputated) .....	1
손(Hand) .....	5
주관절-침(Elbow-Korean needle) .....	1
<hr/>	
계 .....	140

#### XV. 기형(MALFORMATIONS)

구개열(Cleft Palate) .....	1
순열(Hare-lip) .....	30
구강저부로부터 분리된 혀(Separation tongue from floor of mouth) .....	1
구강폐색(Acclusion mouth) .....	3
비강폐색( " Nostrils) .....	2
<hr/>	
계 .....	37

#### XVI. 결합조직 질환(DISEASES OF THE CONNECTIVE TISSUE)

농양(Abcess)	
요근(Psoas) .....	2
복부근육(Abdominal Muscles) .....	1
족관절(Ankle) .....	4
액와부(Axillary) .....	6
귀(Aural) .....	18
배부(Back) .....	4

종아리(Calf) .....	18
경부임파선(Cervical Glands) .....	30
볼(Cheek) .....	3
치아(Dental) .....	5
대퇴부(Femoral) .....	2
전신(General) .....	100
둔부(Gluteal) .....	3
두부(Head) .....	2
손(Hand) .....	2
요추(Lumbar) .....	2
흉근(Pectoral Muscles) .....	1
욕창(Bed Sore) .....	6
괴저성 구내염(Cancrum Oris) .....	7
봉와직염, 하지(Cellulitis Leg) .....	4
봉와직염, 머리와 안면( " Head and Face) .....	7
유방염(Mastitis) .....	8
조갑주위염(Paronychia) .....	5
발의 천공성 궤양(Perforating ulcer foot) .....	2
궤양(Ulcers)	
등(Back) .....	1
안면(Face) .....	6
발(Feet) .....	18
손(Hand) .....	2
하지(Leg) .....	44
입술(Lips) .....	2
목(Neck) .....	1
접종(Vaccination-Native) .....	2
슬와부(Popliteal space) .....	1
천연두 흔적(Sequelae of Variola) .....	4
흉골부(Sternal) .....	1
대퇴부(Thigh) .....	2
발가락 사이(Between Toes) .....	2
생안손(Whitlow) .....	12



종창(Carbuncle) .....	10
종기(Furuncle) .....	13
<hr/>	
계 .....	363

XVII. 피부질환(SKIN DISEASES)

발진성(Exanthemata)

두드러기(Urticaria) .....	16
홍반(Erythema),	
단순성(Simplex) .....	1
결절성(Nodosum) .....	6

소포성(Vesiculæ)

습진(Eczema),	
두부(Capitis) .....	9
전신(General) .....	139
포진(Herpes) .....	10
유가(Crusta lactea) .....	3

소농포(Pustulæ)

심농가진(Ecthyma) .....	12
농가진(Impetigo) .....	18

이상비대(Hypertrophy)

모반(Naevus) .....	2
사마귀(Veruga) .....	6
티눈(Clavus) .....	10

(See quumve) 콘딜로마타(Condylomata)

상피병(Elephantiasis) .....	4
--------------------------	---

기생충(Parasiticæ)

옴(Scabies) .....	160
황선(Favus) .....	39
백선(Tinea),	
모창(Sycosis) .....	2

두부(Capitis) .....	2
윤상(Circinati) .....	25
이(Pediculus),	
머리이(Capitis) .....	68
사면발이(Pubes) .....	23
구진성(Papulæ)	
태선(Lichen) .....	21
수포(Bullæ)	
천포창(Pemphigus) .....	11
여각진(Rupia),	
단순성(Simplex) .....	9
위의 매독성 참고((See above) Syphilitic)	
인설(Squamæ)	
나병(Leprosy) .....	58
건선(Psoriasis) .....	20
어린선(Icthyosis) .....	4
비강진(Pityriasis) .....	17
반점(Maculæ)	
상피(Epithelis) .....	21
결절(Tubercula)	
여드름(Acne) .....	50
연속종(Molluscum) .....	1
해족증(Keloid) .....	5
낭창(Lupus) .....	1
신경증(Neuroses)	
양진(Prurigo) .....	52
무감각증(Anæsthesia) .....	1
지각과민(Hyperasthesia) .....	9
매독진(Syphilida)-매독 참고(See Syphilis)	
동상(Chilblains) .....	2
수부균열(Chapped hands) .....	3
취한증(Fætid perspiration) .....	1
주사(Gin Drinker's nose) .....	4

계 ..... 845

XVIII. 여성질환(DISEASES OF WOMEN)

유산(Abortion) .....	9
무월경(Amenorrhœa) .....	10
월경불순(Dysmenorrhœa) .....	8
백대하(Leucorrhœa) .....	27
월경과다(Menorrhagia) .....	2
임신성 오심(Nausea of Pregnancy) .....	1
난소염(Ovaritis) .....	1
분만(Parturition) .....	2
자궁탈출증(Prolapse Uteri) .....	1
산욕기패혈증(Puerpural septicaemia) .....	3
직장질누공(Recto-vaginal fistula) .....	1
잔류태반(Retained placenta) .....	2

계 ..... 67

미분류(Unclassified) ..... 721

총계 ..... 10,460

진료실 수술(DISPENSARY OPERATIONS)

농양절개(Abcesses opened) .....	200
임파성종창절개(Bubos cut) .....	2
탈구교정(Dislocations Reduced) .....	1
안검내반수술(Entropion operations) .....	20
지방종제거술(Fatty tumors removed) .....	22

낭종제거술(Cystic " " ) .....	29
골절교정(Fractures set) .....	2
임질감염(Gonorrhœal infections) .....	22
비강폴립제거술(Nasal Polypi Removed) .....	32
영아발가락분리술(Operation for separation of toes-infant) .....	1
도관삽입환자(Patients catheterized) .....	21
예방접종환자( " vaccinated) .....	19
복수천자술(Paracentesis abdomen) .....	2
발치(Teeth extracted) .....	15
외상봉합(Wounds sewed) .....	4
표저절개(Withlows cut) .....	2
<hr/>	
계 .....	394

## 외래 환자에 대한 기록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병실 공간이 부족해 많은 내과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었다. I군(Class I)의 증례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수는 아니다. 천연두는 매우 흔했는데, 100명의 아이 중 60-70명이 인두접종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천연두에 걸릴 것이다. 인두접종이나 보통의 전염에 의해 이 병에 걸리지 않고 성인까지 자라는 경우는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다.

보편적인 접종 방법은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개 성별에 따라 왼쪽 혹은 오른쪽 콧구멍으로 넣는다. 2살 이전에 이 병을 앓은 어린이 100명 중에서 20명은 죽고, 또 다른 20명은 2-4세 사이에 죽어 40-50명이 죽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의사들은 한국인 사망의 50퍼센트는 천연두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를 받지 않는다. 천연두에 걸린 어린 환자들은 유모의 등에 얹혀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 병에 그리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II군(Class II)에는 더 많은 기생충의 예가 있어야 한다. 윤충 및 촌충은 일부의 외국인만 감염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너무 흔하지만, 대개 매우 크게 고통을 받거나 의사가 묻지 않으면 별 치료를 하지 않는다.

III군의 각혈 92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디스토마 증례를 포함하지만, 우리들은 현미

경을 사용하거나 사후 부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없다.

XVII군은 실제로 더 많아야하는데, 피부병이 일부 체질적인 문제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160에 이상의 욕을 치료했는데 이 병이 한 집에 들어가면 대개 동거인 모두가 걸리며,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는 친구의 약도 요청해 얻어간다. 최근 우리는 10가구로 이루어진 마을에 황산 연고를 주었는데, 그들은 모두 가려움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예로 계산되었다.

이(pediculi)는 수천 예가 있었다고 말해야 될지 모른다. 치료한 경우는 머리털을 여기에 기생하는 이의 덩어리들과 함께 제거한 경우이다. 지금 이러한 환자 한 명이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머리카락을 다 자를 수 없기에 모든 이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나병 환자 중에는 마비형이 많았으며, 열은 황갈색의 반점이 전신을 덮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손가락과 발가락의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부위는 썩어가는 진성의 백색 나병환자들이었다. 백색이 분명한 특징이 되지 못하는 것은, 대개 추방당한 거지들인 이들의 몸이 불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피(scale)는 어떤 다른 색을 띠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매독이나 다른 질병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병증을 완화시켜서 환자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나병 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는 소문이 났고,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왔다.

처음에 우리는 ‘새로운 질병’으로 부른 IX군에 속한 질병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예들은 독특한 것들이었으며, 너무나 진지하게 호소했기에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발이 때때로 고통스럽게 차가워 졌지만 기능 장애는 없었다. 이외의 병도 없었다. 이 오한은 때로 주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퀴닌을 투여하였다. 그 환자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른 환자가 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들이 완치되었다고 믿고 싶어졌다.

특별성지지절단증(ainhum) - 이 질병은 17세 된 소년 한 예만 보았다. 과거력은 다소 불충분했다. 부모는 모두 건강했으며 소년이 아는 한 그의 가족 중 비슷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병은 14세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무 그루터기를 찔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했다. 발가락은 점차 하나씩 떨어져나갔고 그가 진찰소에 왔을 때 오른쪽 발의 모든 발가락이 없어져 발의 내측부를 제외하고는 발끝이 매끈하고 둥글게 되어 있었다. 그는 발의 내측부에 남아있는 작고 얇은 둥근 궤양을 치료받기 원했다. 왼쪽 발을 검사해보니 엄지 및 세 번째 발가락이 아직 남아 있었다. 다른 발가락이 있던 자리는 상처가 잘 아물어 있었다. 더 검사하기 위해 소년을 병원으로 보냈으나 그는 수술이 두려워 도망쳐 버렸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203명의 환자는 신체의 각 부위에 생긴 농양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중 일부는 농양이 아주 컸다. 슬와에 농양이 있었던 한 예는 절개했을 때 10온스 이상의 고름이 나왔으며, 다른 예에서는 같은 위치의 농양에서 8온스 이상의 고름이 나왔고 대퇴, 두피의 반을 포함하는 머리, 흉근 및 액와에서 8온스씩의 고름이 나왔다.

이들 중 일부는 급성이었으나, 대다수는 만성이었다. 우리는 이것이 연주창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대개 이 경우 목 근처에 생겼으며 때로 이 부위의 모든 결합조직이 패였고 공동(空洞)으로 굴이 형성되었다. 이들 중 많은 것이 첫 방문 이후에 관찰되지 않았다.

우리는 통상적인 치료를 했는데, 대개는 두 군데를 절개하여 배농시켰고, 흡인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석탄산수 1-40(1/40으로 희석한? : 역자)을 집어넣어 농양이 있던 곳을 조금 팽창시켰다. 우리가 추적할 수 있었던 예는 대개 결과가 좋았다.

우리는 한의사가 치료한 농양 환자를 많이 보았다. 그들의 치료는 농양을 개방하고, 길게 끈 종이를 심의 역할을 하도록 삽입하는 단순한 것이었다. 때로 이것이 자극원이 되었다. 병원으로 후송될 정도로 심각한 환자에게는 이 종이심을 제거하고 매일 석탄산수를 넣어주자 대개 눈에 띄게 좋아졌다.

매독은 760예를 보았는데 매독의 후유증은 200예 이상을 치료했다. 놀랍게도 이 병은 흔한 질병이었고, 치료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거의 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가 많은 것 같았다. 한의사들은 수은으로 치료했는데, 우리의 의사 동료들은 이 약이 보통 훈증(fumigation)에 의해 투여되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우리는 수은의 과도한 사용으로 중독된 환자를 한 명 보았으며, 수은 치료 때문에 침을 흘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매독 환자에 대한 우리들의 치료는 매우 만족스러워서 우리에게 오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충분한 병력이나 혹은 전혀 병력을 얻기 힘든 경우에 어떤 상관관계를 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뼈의 질환(우리는 150예 정도를 보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전체 골격 중 상당 부분의 뼈에 병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과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이 병의 관계를 추적해 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이러한 병은 많은 경우 아주 만족스럽지 못했다. 왜냐하면 완전히 희망이 없는 단계는 아니더라도,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까지 병이 진행된 다음에야 병원에 오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지 않는 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도록 했다.

질병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질적인 치료와 강한 황산구리용액을 주사하여 많은 환자를 치료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난치성인 경우에도 우리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경우 중 상당수는 날씨가 나빠 간단한 수술 이외에는 감히 수술을 할 수 없었던 겨울철에 일어났음을 언급해야겠다.

이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독자들은 우리가 치료한 질병 가운데 여성에게만 생기는 많은 질병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것이 결코 우리가 보았던 모든 여성 환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일반적인 질병으로 진찰소에 온 여성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환자를 많이 보았으며 귀부인들은 계속해서 남편이나 친지를 통해 필요한 약을 달라고 요청한다.

각각 혼탁은 104예를 보았는데, 대부분은 천연두의 합병증이였다. 화살이나 돌에 의한 상처의 결과로 생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환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외모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흰 반점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면 상당히 실망해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문신을 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었으나, 이것은 매우 지루할 뿐더러 거의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약을 주기만 하면 반점이 즉시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동의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가운데 가장 슬픈 것 중 하나는 우리에게 계속 오는 많은 수의 불치 환자였는데, 눈병의 상당수가 이 부류에 속했다. 두 눈이 완전히 손상된 남자가 외국인 의사가 그를 완치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찾아 왔을 때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수종을 많이 치료했다. 일부는 약으로 치료하였지만, 나머지는 천자술을 시행했다. 한 예에서는 환자가 더 이상 우리들의 진찰을 받지 않게 될 때까지 이 처치를 5번 반복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질병에 대한 우리의 치료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조금만 좋아지면 환자들은 오지 않았다. 때로 원인을 추적하기가 매우 힘들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외과적 측면에서 흥미로웠던 예는 상지 위축(atrophy)이 있는 환자였다. 이 젊은이가 어려서 급류에 빠져 떠내려갈 때 등뒤에서 어떤 사람이 팔로 잡았는데, 이때 상완골이 완전히 탈구되었고, 아마 상완골을 고정시키는 인대들이 모두 손상된 듯하다. 그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의 좌측 상지는 우측 상지와 길이가 비슷했지만, 8세 된 아이의 것 보다 크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쥐 수 있었고 팔꿈치는 약간 구부릴 수 있었으나 이것이 좌측 상지가 할 수 있는 운동의 전부였다. 어깨 및 견갑골을 덮는 근육은 모두 퇴화되었고, 상완골을 당기면 관절와로부터 거의 2인치나 빠져 나왔다. 이것은 위축된 근육과 파열된 인대를 대신할 보조기를 만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였다.

의사로서 우리에게 흥미로웠던 다른 예는 중지에 동맥류성정맥류가 생긴 경우였다. 그것은 손가락을 문 뒤에 찢었기 때문에 생겼는데, 환자가 진찰 받으러 오기 약 6년 전에 생긴 일이었다. 그는 기구를 사용하는 일에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손바닥에 공을 놓고 그 위로 손가락을 굽힌 상태로 붕대를 감으려 시도했으나, 그가 통증을 참지 못해 붕대를 손가락 주위에 단단히 감았다. 이로 인해 그는 불편했기 때문에 내복약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하자 그는 불쾌해하며 나가버렸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등유(Kerosine Oil)를 마셔 중독된 환자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천연두로 아이를 잃은 여인이었다. 우리는 그녀를 직접 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병원의 하인으로 부터 그녀의 병력에 대한 유일한 정보를 얻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녀는 약 1파인트의 기름을 마셨는데, 우

리에게 연락이 왔을 때 그녀는 혼수 상태에 있었다. 그녀를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구토제를 보내고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락이 없어 결과를 모른다.

치료한 질병 중 가장 흔했던 것은 다양한 종류의 학질이었었는데, 총 1,061예를 진료하여 전체 환자의 약 1/10을 차지하였다. 이 환자들은 전국에서 왔는데, 때로 500리(135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왔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겨울에 본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사일열 학질이었고, 여름과 가을에 본 환자들은 주로 매일열과 삼일열 환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다시 온 환자는 한 두 명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의 계획은 오한이 예상되는 날에 퀴닌을 주고, 뒤이어 화올러 용액(Fowler's Solution of Arsenic)과 복합 요오드 용액(Compound Solution of Iodine)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퀴닌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으며, 이것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청이 많이 들어 왔다.

우리는 보다 자세하고 완벽하게 기록하지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처음에 한 사람이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외래에서 각 환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기록하지 못했다. 또한 초진 환자나 재진 환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보관한 기록을 대조해보면 약 7,000명의 초진 환자를 진료했고, 재진 환자들은 대부분 매독성 환자들이었다.

### 입원환자 분류

번 호	나 이	성 별	질 병	처 치	담 당 <sup>43)</sup>	입원 일수	결 과
1	25	남	Necrosis(대퇴부괴사)	Femur Sequestrotomy(부골절개)	A.	24	Good
2	40	"	Dislocation Knee, Old(슬관절탈구)	Too old	..	6	Nil
3	36	"	Bright's Disease(브라이트씨병, 신장질환)	...	...	3	Died
4	42	"	Remittent Fever(이장성발열)	...	...	8	Good
5	-	"	Syphilitic Ulcers(매독성 궤양)	...	...	3	Nil
6	-	"	Ulcer Cornea(각막궤양)	Refused(거부됨)	...	3	"
7	20	여	Necrosis Knee joint(슬관절괴사)	Sequestrotomy(부골절개술)	A.	39	Fair
8	49	남	Ascites(복수)	..	...	2	Nil

43) A는 알렌을, S는 스크랜튼을, H는 해론을 가리킨다.



9	30	여	Gastrodynia(위경련)	...	...	32	Good
10	30	"	Prolapse Uteri(자궁탈출)	Reduction(환원정복술)	A.	24	Fair
11	60	남	Necrosis Metatarsus(중족골괴사)	Removal(제거술)	S.	38	Good
12	15	"	Scabies et Eczema(움 및 습진)	...	...	38	Cure
13	58	여	Ecthyma(대농포진)	...	...	122	"
14	46	남	Ulcer bottom foot(발바닥궤양)	...	...	15	"
15	28	여	Rheumatoid Arthritis(류마치스성 관절염)	...	...	21	Nil
16	30	"	Chancre(경성하감)	...	...	9	Fair
17	30	"	Osteo Sarcoma Toe(발가락골육종)	Useless(불필요)	...	1	Nil
18	32	남	Ulcer side of foot(족측부궤양)	Cut(절제술)	A.	9	Good
19	36	"	Cataract(Left)(백내장, 좌안)	Enucleation(안구제거술)	A.	20	Cure
20	45	"	" (Right)(백내장, 우안)	" (안구제거술)	A.	20	"
21	45	"	" " (백내장, 우안)	"(안구제거술)	A.	20	Good
22	60	"	" " (백내장, 우안)	"(안구제거술)	A.	47	Bad
23	20	"	Fistula in ano(항문누공)	Cut Sphincter(괄약근절제술)	A.	22	Cure
24	29	"	" " " (항문누공)	" "(괄약근절제술)	A.	22	"
25	30	"	Acute Abscess Ankle(급성발목농양)	Opened(배농술)	A.	13	"
26	45	"	Tinea Circinata(윤상체부백선)	...	...	19	Good
27	40	여	Abscess Lung(폐농양)	Free opening(개방성배농술)	A.	23	"
28	10	남	Phimosis(포경)	Circumcision(포경수술)	A.	26	Cure
29	40	여	Occlusion Mouth(구강폐색)	Plastic(성형수술)	A.	4	"
30	40	남	Snake bite(뱀에 물림)	...	...	2	Nil
31	36	여	Burn Breast(유방화상)	...	...	4	Good
32	16	남	Occlusion Mouth and Nose(구강 및 비강 폐색)	Plastic(성형수술)	A.	6	Cure
33	40	"	Wounds and Abscess(창상 및 농양)	Opened(배농술)	A.	6	"
34	36	"	Bronchorrhœa(기관지루)	...	...	15	Good
35	27	"	Lymphangitis Arm(상지임파선염)	...	...	30	Nil
36	31	"	Leprosy(나병)	...	...	3	"
37	12	"	Ranula(하마중)	Punctured(천자술)	A.S.	3	Cure
38	30	"	Fistula in ano(항문 누공)	Cut Sphincter(괄약근절제술)	A.	30	"
39	30	"	Chancroid and bubo(연성하감 및 횡현)	Crucial cut(십자절개술)	A.	3	Good
40	30	"	Gluteal abscess(둔부농양)	Opened(배농술)	A.	24	Cure
41	32	"	Staphyloma cornea(각막포도상종양)	Excised(절제술)	A.	9	Good
42	36	"	Occlusion mouth(구강폐색)	Plastic(성형수술)	A.	6	"
43	40	"	Anal abscess(항문농양)	Opened(배농술)	A.	6	Cure
44	22	"	Syphilitic Rupia(여각진)	...	...	30	Good

45	20	"	"	Gummatta(anus)(매독성 항문고무종)	...	...	15	"
46	30	"		Lumbar abscess(요추부농양)	Opened(배농술)	S.	19	"
47	26	"		Profound Anæmia(심한 빈혈)	...	...	16	Fair
48	35	여		Eczema Face(안면습진)	...	...	31	Cure
49	25	남		Necrosis Rib(늑골괴사)	...	...	30	Fair
50	18	"		Phimosis(포경)	Circumcision(포경수술)	S.	21	Cure
51	22	"		Necrosis bone great toe(제1족지골 괴사)	Amputation(절단술)	A.	8	Good
52	16	"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	...	15	"
53	18	"		Anal abscess(항문농양)	Opened(배농술)	A.	27	Cure
54	40	"		Wound from fall(낙상에 의한 창상)	Dressed(창상치료)	A.	4	Good
55	20	"		Syph.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	...	20	"
56	30	여		Old onychia great toe(오래된 제1족조갑염)	amputated (절단)	A.	12	Cure
57	40	남		Remittent Fever(이장성발열)	...	...	6	"
58	46	"		Anal abscess(항문농양)	Opened(배농술)	A.	33	"
59	60	여		Old dislocation shoulder(오래된 견관절탈구)	Useless(불필요)	...	3	Nil
60	61	남		Cellulitis arm(상지봉와직염)	...	...	5	"
61	18	"		Fistula in ano(항문누공)	Cut Sphincter(괄약근절제술)	A.	41	Cure
62	48	"		Symblepharon, doubl.(양측성 안검유착증)	Cut and stitched(절단 및 봉합)	A.	57	Good
63	16	"		Staphyloma cornea(각막포도상종양)	Paracentesis(천자)	A.	11	"
64	23	"		Anal abscess and fistula(항문농양 및 누공)	Refused(거절)	...	2	Nil
65	42	"		Corneal ulcer(각막궤양)	Paracentesis(천자)	A.	8	Good
66	25	"		Marasmus(소모증)	...	...	5	Nil
67	13	"		Corneal opacity(각막혼탁)	Iridectomy(홍채절제술)	A.	5	Good
68	25	여		Chancroid (연성하감)	...	...	30	Cure
69	33	남		Hypertrophy spleen(비장비대증)	...	...	25	Died
70	30	"		Psoas abscess(장요근농양)	Opened(배농술)	H.	5	Good
71	20	여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	...	3	Nil
72	22	남		Indolent ulcer(무통성궤양)	...	...	34	Cure
73	28	"		Obstruction bowel(장폐색)	...	...	4	"
74	30	"		Chancroid and Stricture(연성하감 및 협착)	Catheterized(도관삽입)	H.	6	Good
75	60	여		Entropion both eyes(안검내반, 양안)	Operation(수술)	A.	4	Cure
76	50	여		Entropion both eyes(안검내반, 양안)	Operated(수술)	A.	4	Cure
77	25	"		Chancroid(연성하감)	...	...	21	"
78	35	남		gunpowder burn(화약화상)	...	...	9	"
79	40	"		Detachment Retina(망막박리)	...	...	30	Fair
80	20	"		Syphilitic Ulcers(매독성궤양)	...	...	15	Good

81	20	"	Favus(황선)	...	...	5	Cure
82	35	여	Perforation Tympanum(고막천공)	...	...	3	Nil
83	19	"	Chancre Lab. Maj.(대음순경성하감)	...	...	4	"
84	40	남	Opacity Cornea(각막혼탁)	Iridectomy(홍채절제술)	A.H.	12	Good
85	28	여	Native Mercury poisoning(수은중독)	...	...	6	Nil
86	55	"	Recto-Vaginal Fistula(직장-질 누공)	Too feeble(너무 미약)	...	3	"
87	50	남	Int. Hemorrhoids(내치질)	Dilatation(확장)	A.	5	Cure
88	22	"	Bubo(횡현)	Crucial cut(십자절개술)	A.	8	"
89	24	"	Opacity Cornea(각막혼탁)	Iridectomy(홍채절제술)	H.	8	Good
90	21	"	Fistula in ano and Piles(항문누공 및 치질)	Cut and Ligated(절체 및 결찰)	A.H.	14	"
91	19	"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	...	30	"
92	25	"	Wounds by sword, 3(칼에 의한 창상, 3)	8 sutures(8번 봉합)	A.H.	25	Cure
93	26	"	" " " 20(칼에 의한 창상, 20)	8 "(8번 봉합)	A.H.	51	"
94	30	"	" " " 14(칼에 의한 창상, 14)	15 " 1 Lig.(15번 봉합, 1결찰)	A.H.	51	"
95	31	"	Anal abscess(항문농양)	Opened(배농술)	H.	26	"
96	30	"	Wound from fall(낙상에 의한 창상)	Dressed(창상 치료)	A.	5	Good
97	30	"	Anal abscess(항문농양)	Opened(배농술)	H.	11	"
98	38	"	Hemorrhoids(치질)	Dilatation(확장술)	A.	6	"
99	60	여	Chronic ulcer ankle(발목만성궤양)	...	...	30	Cure
100	55	"	" " "(발목만성궤양)	...	...	17	Good
101	30	"	Open abscess breast(유방개방성농양)	...	...	24	"
102	22	남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Cut off tabs(절제술)	H.	17	"
103	23	"	Indolent ulcer thigh(대퇴부무통성궤양)	...	...	90	Cure
104	23	"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Cut off tabs(절제술)	H.	20	Good
105	20	"	Wound finger, gun(손가락 총상)	Amputated(절단)	A.	25	Cure
106	22	"	Corneal opacities, 2(양쪽 각막혼탁)	2 Iridectomies(홍채절제술 2회)	A.	6	Good
107	20	"	Kake-Beri-beri(각기병)	...	...	28	Died
108	20	"	Double Fecal Fistula(이중성변누공)	Cut Sphincter(절단 및 봉합)	A.	27	Cure
109	53	"	Corneal opacity(각막혼탁)	Iridectomy(홍채절제술)	A.	5	Good
110	40	"	Pterygium(익상편)	Ligated and cut(결찰 및 절제술)	A.	26	Cure
111	40	"	Deep ulcer leg(하지심부성궤양)	...	...	30	"
112	40	"	Superficial ulcer leg(하지표재성궤양)	..	...	5	Fair
113	35	"	Necrosis femur(대퇴부괴사)	Bone came away	...	10	Good
114	1	"	Choleraic Diarrhoea(콜레라성설사)	...	...	3	Cure
115	30	"	Perforating ulcer foot(족부천공성궤양)	Grafts, etc.(식피편 등)	A.H.	210	Fair
116	25	"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	...	23	Good

117	40	여	Acute Rheumatism(급성류마치스)	...	...	10	"
118	45	남	Cystic tumor temple(측두낭종)	Eneucleation(적출술)	H.	15	Cure
119	63	"	Ascites(복수)	Paracutis(천자)	A.	37	Good
120	70	"	Cataract both eyes(양안백내장)	2 Eneucleation(양쪽안구제거)	A.	13	Cure
121	40	"	Facial Erysipelas(안구부단독)	...	...	15	Cure
122	45	"	Popliteal ulcers(슬와부궤양)	...	...	17	Cure
123	30	"	Anal abscess acute(급성항문농양)	Opened(배농술)	A.	33	Cure
124	30	"	Chronic cellulitis knee(만성슬관절봉와직염)	Bandage(붕대법)	...	24	Good
125	30	"	Anal abscess and fistula(항문농양 및 누공)	Cut sphincter(괄약근절제술)	H.	53	Good
126	60	"	Ascites(복수)	Paracutis(천자)	H.	25	Fair
127	31	"	Exostosis sup. maxillary(상악골의 외골증)	Too large(너무 큼)	...	18	Nil
128	10	"	Complete scrotal Hernia(완전성음낭부탈장)	Taxis(탈장정복술)	...	18	Nil
129	25	"	Orchitis(고환염)	...	...	3	Nil
130	40	"	Sinuses in foot(족부동)	Cautery(소작법)	...	43	Cure
131	45	"	Epithelioma Penis(음경상피종양)	Amputation(음경절단술)	A.H.	24	Good
132	63	"	Ascites(복수)	Paracutis(천자)	A.	4	Died
133	25	"	Fracture radius-bite horse(요골골절-말에물림)	Set(고정)	A.H.	42	Good
134	20	"	Hemorrhoids(치질)	Dilatation(확장술)	A.	5	Good
135	60	"	Ascites(복수)	Paracutis(천자)	H.	18	Fair
136	50	"	Opacity cornea(각막혼탁)	Iridectomy(홍채절제술)	H.	16	Fair
137	22	"	Fistula in ano(항문누공)	Cut Sphincter(절단 및 봉합)	H.	18	Good
138	24	"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	...	40	Good
139	25	"	Elephantiasis leg(하지상피증)	...	...	21	Fair
140	20	"	Necrosis metatarsals(중족골 괴사)	Refused help(거절당함)	...	5	Nil
141	47	"	Entropion(안검내반증)	Operated(수술)	A.	5	Cure
142	54	"	Cataract(백내장)	Eneucleation(안구제거술)	A.	9	Good
143	60	여	Entropion both eyes(양안안검내반증)	2 Operations(수술 2회)	A.	5	Cure
144	38	남	" (양안안검내반증)	Operation(수술)	A.	4	Cure
145	30	"	Perforating ulcer foot(족부천공성궤양)	...	...	5	Nil
146	30	여	Syphilitic eruption(매독성발진)	...	...	10	Good
147	22	남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	...	6	Good
148	25	"	Choleraic diarrhœa(콜레라성설사)	...	...	4	Cure
149	45	"	Enormous Chancroid(거대연성하감)	...	...	16	Cure
150	27	"	Ulcers Body and Legs(체부 및 하지궤양)	...	...	28	"
151	30	"	Anal Abscess and fistula(항문농양 및 누공)	Cut Sphincter(절단 및 봉합)	A.	14	"

152	50	"	Strangulated Piles(감돈성치핵)	Ac. catob. (carb.)	..	5	"
153	22	"	Kakke and Leprosy(각기병 및 나병)	...	...	7	Good
154	30	"	Kakke(각기병)	...	...	7	"
155	58	"	Cataract(백내장)	Enucleation(적출술)	A.	17	Bad
156	60	"	Bronchitis(기관지염)	...	...	17	Good
157	25	여	Parametritis(자궁주위염)	Injection(주사)	...	3	Nil
158	30	남	Bubo(횡현)	Opened(절거배농술)	A.	13	Cure
159	30	"	Kakke(각기병)	...	...	12	"
160	60	"	Cataract(백내장)	Enucleation(적출술)	A.	18	Good
161	25	"	Fistula in ano(항문누공)	Cut Sphincter(절단 및 봉합)	A.	27	Cure
162	25	"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	...	13	Good
163	53	여	Entropion(안검내반증)	Operated(수술)	A.	6	Cure
164	30	남	Inguinal Sinus(회음동)	Section(절개)	A.	25	"
165	32	"	Tympanitis(고실염)	...	...	2	Nil
166	28	"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Strangulted(괄약술)	A.	21	Cure
167	30	"	Fistula in ano(항문누공)	Cut Sphincter(괄약근제거술)	H.	14	"
168	62	"	Incipient Cataract(초기 백내장)	Puncture(천자술)	A.	6	Good
169	60	"	Ascites(복수)	...	...	10	Nil
170	58	"	Erysipelas-General(전신성단독)	...	...	8	Died
171	50	"	Entropion(발진)	Operated(수술)	H.	7	Cure
172	19	"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Catheterized(도관삽입)	A.	21	Fair
173	6	"	Paraplegia(하반신불수)	...	...	12	Nil
174	50	"	Fatty tumor neck(경부지방성종양)	Enucleation(적출술)	A.	13	Cure
175	24	"	Remittent fever(이장성발열)	...	...	6	Good
176	30	"	Facial Erysipelas(안면단독)	...	...	10	Cure
177	30	"	Sprain foot(족부염좌)	Dressed(치료)	...	5	Fair
178	50	"	Cataract(백내장)	Too cold	...	30	Nil
179	57	남	Staphyloma Cornea(각막포도상종양)	...	...	6	Nil
180	22	"	Acute Indigestion(급성소화불량)	...	...	14	Good
181	43	"	Epithelioma Penis(음경상피종양)	Refused(거절됨)	...	8	Nil
182	21	"	Fistula in ano, 3.(항문누공, 3)	United and cut(유합 및 절제)	A.	18	Cure
183	21	"	" " " 2.(항문누공, 2)	" " "(유합 및 절제)	A.	20	"
184	18	"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	...	19	Good
185	25	"	Axillary abscess(액와부농양)	Opened(배농술)	H.	5	Cure
186	25	"	Fistula in ano(항문누공)	Cut Sphincter(괄약근절제술)	H.	19	Good
187	25	"	Wound hand-Gun burst(총에 의한 손창상)	Amputated thumb(무지절단)	A.H.	67	Cure

188	25	"	" Head " (총에 의한 두부창상)	Dressed(치료)	A.H.	33	Cure
189	30	"	Co. fracture tibia(경골골절)	Set(고정)	A.H.	90	입원중
190	30	"	Mastoid abscess(유양부농양)	Poulticed(습포)	...	6	Good
191	46	여	Entropion(안검내반증)	Operated(수술)	A.	4	Cure
192	34	남	Dropsy(수종)	...	...	14	Died
193	20	"	Marasmus(소모증)	...	...	6	Nil
194	24	"	Fistula in ano(항문누공)	Cut Sphincter(괄약근절제술)	H.	32	Good
195	26	"	Wound hand-gun burst(총상에 의한 창상)	Amputated finger(손가락절단)	H.	33	Cure
196	30	"	Paraphimosis(갑돈포경)	Slit prepuce(상처포피)	A.	20	Cure
197	62	여	Entropion both eyes(양안안검내반증)	Operation(수술)	A.	5	Cure
198	32	남	Stricture Rectum(직장협착증)	Dilated(확장술)	A.	5	Good
199	42	"	Sword stab abdomen(복부칼자상)	Dressed(치료)	H.	10	Good
200	26	"	Superficial ulcer legs(하지표재성궤양)	...	...	15	Fair
201	45	"	Deep " "(하지심부성궤양)	...	...	48	Good
202	25	"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	...	25	Good
203	25	"	Fistula Rectum (long)(직장누공)	Cut Sphincter(괄약근절제술)	...	17	Cure
204	66	"	Dropsy(수종)	...	...	6	Nil
205	34	"	Pleuritis(늑막염)	...	...	3	Nil
206	30	"	Cellulitis leg(하지붕와직염)	Cut for pus(배농을 위한 절개)	H.	30	Cure
207	29	"	Fracture clavicle(쇄골골절)	Set(고정)	A.H.	3	Good
208	34	"	Popliteal ulcer(슬와부궤양)	...	...	13	Good
209	22	"	Fistula in ano(항문누공)	Cut Sphincter(괄약근절제술)	A.	19	Cure
210	36	"	Ulcer foot(족부궤양)	...	...	34	Cure
211	49	"	Chancre(경성하감)	...	...	32	Good
212	62	"	Fracture Patela(슬개골골절)	Set(고정)	A.H.	2	Nil
213	25	"	Phimosis and ulcers(포경 및 궤양)	Slit prepuce(상처포피)	A.	12	Cure
214	23	"	Extravasation urine(요유출)	...	...	20	Good
215	25	"	Cystic tumor neck(경부낭종)	Enucleated(적출술)	A.	9	Cure
216	30	"	Chancroid(연성하감)	...	...	18	Cure
217	32	"	Popliteal abscess(슬와부농양)	Opened(배농술)	H.	11	Cure
218	31	"	Wound from beating(타박상)	Opened abscess(배농술)	A.	44	Cure
219	40	여	Collese (Colles Fracture)(콜레스골절)	Set(고정)	A.	2	Good
220	55	남	Chancroid and Bubo(연성하감 및 횡현)	Cut Bubo (횡현절단)	A.	11	Cure
221	21	"	" (연성하감 및 횡현)	...	...	10	Cure
222	48	"	" (연성하감 및 횡현)	...	...	10	Cure

223	37	"	Pneumonia(폐렴)	...	...	7	Died
224	20	"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	...	20	Good
225	60	여	Entropion(안검내반증)	Operation(수술)	A.	4	Cure
226	16	남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	...	32	Good
227	23	"	Femoral abscess large(대퇴부대농양)	Opened(배농술)	A.	8	Cure
228	34	"	Pectoral abscess(흉부농양)	...	A.	48	입원중
229	38	"	Fracture frontal bone, Dislocation wrist, cuts face(전두골골절 및 열상, 수근탈구)	1 suture Reduced(정복통합 1회)	A.	24	Cure
230	35	"	Fistula Rectum (long)(직장누공)	Cut Sphincter(괄약근절제술)	A.	10	"
231	19	"	Necrosis knee joint(슬관절괴사)	...	...	41	입원중
232	20	"	Convergent Strabismus(포주사시)	Cut tendons(건절단술)	H.	3	Nil
233	30	"	Hydrocele(음낭수종)	Paracentesis(천자)	A.	11	Cure
234	20	"	Abscess thigh(대퇴농양)	Drainage(배농)	H.	17	"
235	25	"	Ophthalmia(안증)	...	...	11	"
236	30	"	Edema penis(음경부종)	...	...	15	"
237	35	"	Fistula in ano(항문누공)	Cut Sphincter(괄약근절제술)	A.	16	"
238	30	"	Chancroid and Pediculi(연성하감 및 이)	...	...	17	"
239	22	"	Ophthalmia(안증)	...	...	10	Good
240	45	"	Frost bite(동창)	...	...	25	"
241	50	여	Entropion(안검내반증)	Operation(수술)	A.	9	Cure
242	46	남	Fracture jaw (com.)(하악골절(개방성))	5 sutures, set(5회 봉합)	H.	23	"
243	33	"	Wound and abscess foot(족부창상 및 농양)	Opened(개농술)	H.	10	"
244	23	"	Hairlip, uncomplicated(단순구순열)	Operated(수술)	H.	18	"
245	22	"	Leprosy(나병)	...	...	17	입원중
246	38	여	Staphyloma cornea(각막포도종)	Paracentesis(홍채절제술)	A.	8	Good
247	20	남	Necrosis femur(대퇴괴사)	Too weak	...	17	입원중
248	30	"	Tonsilitis(편도선염)	Lanced(란셋으로 절개)	A.	4	Cure
249	26	"	Deep ulcers ankle(발목심재성궤양)	...	...	25	입원중
250	27	"	Multiple Bubo(다발성황현)	Crucial cut(십자절제술)	A.	7	Good
251	27	"	Ophthalmia and Syphilis(안증 및 매독)	...	...	16	입원중
252	31	"	Enormous abscess scalp(두피거대농양)	Opened(배농술)	H.	10	" "
253	34	"	Ascites(복수)	...	...	10	" "
254	23	"	Syph. gumma anus(매독성항문고무종)	...	...	10	" "
255	19	"	Entropion(안검내반증)	Operated(수술)	H.	4	Cure
256	63	"	Anal abscess(항문농양)	Opened(배농술)	H.	9	입원중

257	32	"	(Edema scrotum(음낭부종)	Tapped(천자)	H.	3	Good
258	14	"	Entropion(안검내반증)	Operated(수술)	A.	3	Cure
259	55	"	Necrosis shoulder joint(견관절괴사)	Not ready(준비중)	...	5	입원중
260	14	"	Ulcers neck (large)(거대경부궤양)	...	...	3	입원중
261	30	"	Cataract(백내장)	...	...	2	입원중
262	30	"	Abscess neck (large)(경부거대농양)	...	...	1	입원중
263	30	"	Ulcers between toes(족지간궤양)	...	...	1	입원중
264	16	"	Hypertrophy spleen(비장증대)	...	...	1	입원중
265	30	"	Unclassified(미분류)	...	...	1	입원중

## 입원 환자에 대한 기록

우리는 백내장 수술을 10건만 했다. 더 많은 환자가 왔지만, 몸에 칼 대는 것을 꺼리거나 수술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추웠다. 우리는 추운 겨울 동안 어두운 방에 난방을 할 수 없었고, 많은 환자의 수술이 봄으로 연기되었다. 모든 예에서 코카인을 사용했는데 부작용은 없었다.

사시와 구순열도 많았으나, 치료할 수 없는 자연적인 문제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치료에 적절한 한 예씩만 성공할 수 있었다.

병실은 환자들로 붐볐기 때문에 안검내반증(entropion) 환자 20명은 외래 진찰실에서 수술했다. 나머지 17명의 환자는 병원에서 수술했다.

7예 이상의 홍채절제술(iridectomy)을 시행했을 것인데, 환자들은 흰 반점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대개 수술하려 들지 않았다. 단지 인공 동공을 만든 경우에는 시력이 너무 저하되어 치료가 필요했다.

상악외골증(exostasis superior maxillary)의 경우 눈은 약 5-6인치 정도 밖으로 나와서 환자의 머리 크기만한 거대한 골종양 표면에 있었다.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더라면 수술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큰 사지 절단 수술을 하지 못한 것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절단이 필요한 환자가 여러 명 왔지만, 다리를 잃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듣고 싶어하지 않아 했다. 죽어서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앓고 있을 것이다. 손가락, 발가락 및 음경을 절단한 경우 우리는 환자와 길게 상담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진정으로 알아차리기 전에 절단했다. 환자들은 항상 그 결과에 만족했다.



15번째의 직장루나 항문루가 있는 경우 도자(導子, director)를 장 속으로 넣고 아래로 당겨 바깥쪽으로 빼내었다. 이때 괄약근과 사이에 끼어 있는 조직을 도자 상에서 잘랐다. 이 경우는 대개 결과가 좋았다.

병원과 외래에서 본 많은 항문 점액성종양 환자들은 감홍을 국소도포(insupplation)하여 치료했으며 내복약으로 항매독 치료를 했다. 이것은 여성 대신 소년을 이용하는 변태적인 성적쾌락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또한 항문이나 그 근처에 연성하감(chancroid)이 많이 생기는 원인도 설명해준다.

입질은 상당히 흔하며, 환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입질에 걸린 환관 한 명을 치료했다.

우리는 각기병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는데 아직 충분한 사례들을 경험하지 못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 일본과 중국에서 본 질병과 다른 점이 없어 보였다.

특수한 예. 첫 번째 예는 최초의 입원환자이자 최초의 수술환자였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경우였다.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조수가 클로로포름으로 잘못 마취하여 생긴 좋지 않은 결과로 갖 만들어진 병원의 이름이 손상될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그라든 다리의 상처에서 고름이 흐르는 상태로 병원에 운반되어 왔다. 약취 때문에 아무도 그와 함께 방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12년간 앓아 왔다. 며칠간 상처를 처치한 다음 수술했는데, 약 6인치 길이의 골침 및 대퇴골초를 제거했다. 그는 빠르게 회복되어 24일 만에 목발을 잡고 걸어서 퇴원했다. 그리고 며칠 전 그는 1년간 건강하게 지낸 후 여느 사람처럼 똑바로 서서 병원에 찾아 왔다.

22번째 환자는 백내장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그날 오전에 수술한 4예 중의 하나였으며, 다른 수술들은 잘 되었으나 전안염(panophthalmitis)이 발병해 눈을 잃었다. 155번째 환자 역시 전안염(panophthalmitis)이 생겼으나 눈은 구하였다. 이것은 무척 실망스러운 경우였다. 이것은 백내장 수술 중 가장 잘 된 경우였다. 수정체가 단단했고 어려움 없이 전체를 들어내었다. 그러나 환자는 앓아 있기를 고집했고, 담배를 피웠으며 우리들이 없는 동안 관리들이 방문하도록 허락한 친구들에게 그의 눈을 보여 주기 위해 봉대를 풀었다. 환자에 관한 한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당연하며 그가 시력을 잃은 것은 별이지만, 그렇게 잘된 수술이 망쳐진 것은 무척 실망스러운 일이다.

92~4번 환자는 강도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 93번 환자는 장교의 청지기였다. 손의 굴근건이 상완의 심한 상처로 절단되었고, 이 때문에 상당 시간 동안 손을 잃을까봐 걱정하였다. 그는 또한 가슴에 관통상과 전두골 외판의 골절이 있었다.

치료했던 265명의 환자 중에서 1년 동안 6명만이 사망했다. 5명은 위독한 상태에서 친구들이 데려가 곧 사망했다. 이들도 사망 6명에 더해야 하겠지만, 퇴원시키면 수명이 단축된다고 우리가 퇴원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들을 사망자수에 넣기는 힘들다. 질병이 없어진 모

든 경우를 ‘cured’라고 하지는 않았다. 병세가 호전된 것은 ‘good’과 ‘fair’로 표시했으며 실제보다 과장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에이치. 엔. 알렌  
제이. 더블유. 헤론

제정보고서를 여기에 첨부하려고 했으나 불행히도 첫 회계담당관<sup>44)</sup>이 4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제중원을 떠났다. 현재의 회계담당관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계담당관의 보고

푼

전임 회계담당관이 건물 설비에 사용한 돈 .....	400,000
현 회계담당관이 학교를 포함한 수리에 사용한 돈 .....	1,000,000
현 회계담당관이 임금으로 사용한 돈 .....	1,000,000
현 회계담당관이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돈 .....	35,000
현 회계담당관이 부식비로 사용한 돈 .....	150,000
현 회계담당관이 의복비로 사용한 돈 .....	100,000
현 회계담당관이 연료비로 사용한 돈 .....	800,000

합계(푼) 3,485,000

@ 1,800푼은 \$1.00로서 \$ 2,171.87

이 돈은 200가마의 쌀과 함께 정부가 준 것이다.

김주사  
회계담당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부터 받음 ..... \$ 1,000.00

44) 제중원의 주사로 처음 파견된 사람은 朴準禹, 申洛均, 成翊永, 金奎熙, 金良默의 5 명이다[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奎章閣 17836. 1885년 4월 21일(음력 高宗 22년 3월 7일)자]. 이중에서 1885년 8월 23일 제중원에서의 근무를 마친 신낙균이 첫 재정담당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奎章閣 17836. 1885년 8월 23일(음력 高宗 22년 7월 14일)자].

김 주사로부터 받음 .....	12.00		
의약품비로 사용 .....	\$ 500.00		
기구비로 사용 .....	250.00		
발전기 구입비에 사용 .....	12.00		
학교 기자재 구입에 사용 .....	250.00		
합계	\$ 1,012.00		\$ 1,012.00

에이치. 엔. 알렌

▣ ABSTRACT ▣

## **The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Park Hyoung-Woo, Yeo In-sok

Dept. of Medical Histo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is is the report made in 1886 by Dr. H. N. Allen, the first missionary doctor and the first introducer of Western medicine into Korea. On his arrival in Korea, he proposed a plan for establishing a modern hospital. His proposal was accepted and the first modern hospital opened on April 10th, 1885. The hospital was named Kwang Hye Won, meaning the House of extended grace. This hospital became the forerunner of the present Severance Hospital in Seoul. After having worked there for a year with his colleague Dr. Heron, Dr. Allen wrote an annual report to submit to the missionary board in America. In this report Dr. Allen described some interesting clinical cases and provided detailed data of the patients he had treated. This is invalua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disease pattern of the time. It is a report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modern medicine in Korea. A correct Korean translation along with its original text is given here.